

# '나-우리가 빛이 되어!'

## 지헌춘 제9대 포천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



국제라이온스협회 354-H지구 포천라이온스클럽 제9대 회장으로 지헌춘 회장이 6월26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포천여성회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는 본지 최호열 발행인을 비롯 고조홍 국회의원, 황영철 포천시부시장, 이강림 포천시의회의장과 포천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나-우리가 빛이 되어!'를 주제로 자기작업에 긍지를 가지고 근면 성실하여 함께 사회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포천라이온스클럽 제9대 김형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 동안 교양강좌, 송년의 밤, 자선골

프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함께 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임기중에 일정이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던 김병조 교수를 초빙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헌춘 포천라이온스클럽 제9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임 회장의 노고로 다져진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월회비와 임원회비가 험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

으며 열심히 일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했다.

이날 이취임식을 가진 포천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은 부정한 이득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기도하며 남을 해하지 않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며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하고 우의를 돈독히 하며 이를 이용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기의무를 다하여 국가민족사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불행한 사람은 동정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며 모든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윤리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제8주년기념식을 가진 포천라이온스클럽은 1999년3월 16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 3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7-2008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지헌춘▶직전회장 김형석▶제1부회장 이병림▶제2부회장 신동문▶제3부회장 신중문▶총무 김선수▶재무 조희선▶라이온테마관운▶테일뷰스타 이병우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목회단상

## 언어 훈련의 힘!

언어의 힘은 매우 크다. 의 사소통, 감정의 표현, 사상의 전달 이런 모든 것이 언어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언어가 사람의 마음과 사상을 지배한다. 이렇듯 언어의 힘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한번의 잘못된 표현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말 잘하기보다 잘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영국 해군장교의 규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부하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망을 준다던지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율이다. 나는 설교자의 입장에 있는데 나의 설교시간이 교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보다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줄까 늘 염려를 한다. 용기를 주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는 말은 좋으나 조금이라도 남의 용기를 좌절시키는 말이나 행동은 삼가야 한다.

아픔을 안고 나와 위로 받기를 기대하는 가슴에 또 하나의 아픔을 가중한다면 설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설교자의 자리에 있다.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재기(再起)의 힘을 보태는 것은 비록 설교의 강단만이

아 아니다. 나와 관계하고 접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보람이 된다면 그는 훌륭한 설교자다.

어떤 일이든 전혀 손을 안대는 것보다는 해보고 노력 후 실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노력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노력해서 안되는 일은 없다. 조금 못 미치는 것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바울이라는 성서학자는 그의 승리가 끝까지 선한 믿음을 지킨 노력의 결과라고 성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7절에서 "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冕旒冠)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귀뜸 해주신다.



김창성 내촌교회 목사



### 아름다운 생활 9

## 여름철피부관리

여름철 피부의 최대 적은 높은 기온과 습도 피부진드기 그리고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날씨로 피부 자체의 보호력이 약해져 땀과 피지 같은 피부 분비물이 많아져 쉽게 번들거리며 화장도 쉽게 지워집니다. 또한 과도한 땀과 피지 분비로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가 늘어지기 쉽고, 모낭충의 활발한 활동과 자외선에 의한 피부 자극으로 기미, 잡티, 주근깨, 및 피부의 노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외에도 잦은 목 세안 냉방장치로 피부가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기울인다면 걱정 없이 여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안을 자주하여 피부를 청결히 해야 합니다. 탐구병에 불순물이 쌓이면 피부노화가 촉진되므로 청결함과 청량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 세안을 자주하면 수분이 빠져나가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알맞은 톨린제 제품을 사용하여 효과적 일 것입니다. 사용감이 가볍고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여 마사지를 하는 것도 피부의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때 미백 청정효과가 있는 오이팩을 주 1-2회 정도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고온과 자외선으로 인한 수

분손실로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수분공급 전용에센스나 크림 사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흐르는 땀만큼 수분과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메이크업 제품도 자외선 차단제가 들어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를 사용하고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때에는 모자나 파라솔을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지나친 냉방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냉방은 신체 기능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분을 과도하게 빼앗아 가므로 피부의 탄력과 투명감을 저하시킵니다.

외출 후에는 전신욕과 화기를 다스려주는 기초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처럼 손쉽게 몇 가지만 지켜준다면 지금현재 당신의 피부가 올 여름 후에는 더욱 탄력 있는 피부가 될 것입니다.



뷰티컨설턴트 송명선 010-9757-7648



### 포천시 농사정보 2

## 7월 상순 농사정보

# 중간 물떼기로 뿌리의 활력 높여야

본지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이한설 기술진흥과장의 시기에 맞도록 농작업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1. 벼농사

▶호우로 붕괴가 우려되는 하천 제방 등을 점검 정비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논과 무너질 우려가 있는 논두렁은 물꼬를 낮게 조정하여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해 준다.

▶벼가 물에 잠길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물을 빼 주어 벼 잎의 끝이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해 준다.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갈아 주어 뿌리의 활력을 높여 주도록 하고 비가 그친 후 도열병 등을 방제 한다.

▶논두렁이 무너진 경우에는 안쪽으로 임시로 갈개를 만들어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 한다.

2. 밭작물

▶고추, 수박, 참깨 등 밭작물은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고추는 지주를 단단히 손질하여 쓰러짐을 막는다.

▶고추, 참깨 등 작물이 침수되었을 때는 서둘러 물을 빼주고 쓰러진 작물은 즉시 일꾼 세운 후 밭침대를 보강한다.

▶습해를 받은 포장은 요소 염면시비를 하여 생육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비가 내린 후에는 병 발생이 많아지므로 적용약제로 동시에 방제한다.

3. 과수

▶밭침대를 받치거나 끈으로 묶어서 가지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포도, 배나무 등의 덕 시

실을 단단하게 정비한다.

▶과수원의 도로나 경사지의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등을 덮어준다.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는 일꾼 세워주고 노출된 과수의 뿌리는 흙으로 덮어준다.



이한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 특별기고

##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9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남북의 통일 관심 높아져



서익식 대성저널67기술포럼대표이사

### 남북한의 분단

남북의 분단 문제는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분단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두 요인의 혼재로 분단이 가속·고착화되었다. 그러나 내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분단의 외적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협정들 즉, 테헤란 회담(제2차 세계 대전 종전 1943. 11. 28. · 1943. 12. 1.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수상 처칠, 소련 수상 스탈린의 최초의 3거두 회담), 카이로 선언Cairo Declaration: 1943년 11월 27일에 카이로에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수상 처칠,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가 모여 대일(對日) 전쟁의 수행과 전후의 일본 영토의 처분에 관하여 발표한 미·영·중 삼국의 공동 선언. 포츠담 선언의 기초가 되고,

우리나라 독립도 이 선언에서 약속됨. 알타 협정 (Yalta Agreement),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 1945년 7월 26일에 미국, 영국, 중국의 3국 대표가 일본에 대한 전쟁 종결의 조건을 발표한 선언) 등이 있다.

이들 협정에서 전승국들은 일 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분리 점령과 신탁통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1945년 9월 2일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1)의 결과 한반도 38도 선을 경계로 남북을 분리하여 이 남은 미국이 이북은 소련이 각각 점령하였고, 그 결과 이남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이, 이북은 사회주의에 의한 인민민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남북한 상황 변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 오던 남북한 관계는 1970년 동서 해빙 무드와

함께 관계 개선이 시작되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과거 상대 체제에 대한 불인정 논리와 무력 통일론이 분단 체제의 인정과 평화통일론으로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북 분단 관리론적 국가 운영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보다 실질적이고 개방적인 남북 관계로 진전되어, 1991년 9월 남북한 UN 동시 가입과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 관계가 실질적 측면으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국제 정세의 영향과 북한 핵문제 그리고 남북한간의 이해 대립으로 남북 관계는 대립적 측면이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정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남북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높아져 있다.

# 고객님의 건강까지 생각한 다양하고 정갈한 상차림

# 청정식당

단체손님에약환영 t:543-8215 h:011-354-9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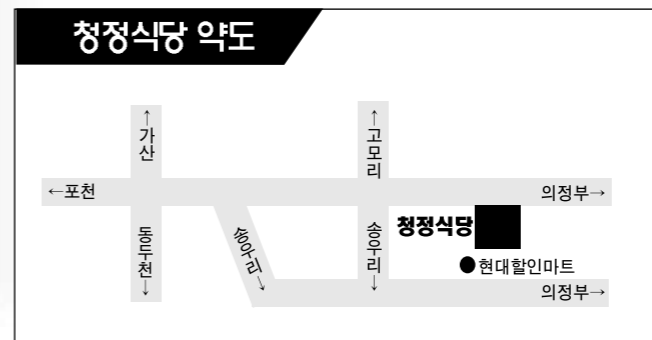
다양한 메뉴

가족·직장회식

넓은 주차공간 보유

### 청정식당 차림표

- 참계탕 소 20,000원 중 30,000원 대 40,000원
- 붕어찜 소 15,000원 중 20,000원 대 25,000원
- 갈치조림 소 15,000원 중 20,000원 대 25,000원
- 해물탕 소 15,000원 중 20,000원 대 25,000원
- 잡고기매운탕 소 10,000원 중 15,000원 대 20,000원
- 고등어조림 (1인기준) 5,000원
- 삼치조림 (1인기준) 4,000원
- 삼겹살 (1인기준) 7,000원



예약문의 031) 543-8215